



축구 국가대표팀 구자철 등 선수들이 터키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7일 새벽(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벨레디에서 경기장에서 첫 훈련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박지성 선행도 '캡틴'

자선재단 설립... 사회공헌사업 시작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한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자선재단 '제이에스 파운데이션(이하 박지성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한다.

박지성이 이사장을 맡은 '박지성 재단'은 7일 "한국 축구의 세계화와 축구를 통한 행복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축구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자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 설립 인가를 받은 박지성 재단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추신수(클리블랜드)와 역대 영웅 장미란(고양시청)을 비롯해 프로농구 전주 KCC를 이끄는 허재 감독, 영화배우 정준호, 김선아 등 스포츠와 연예계 스타들이 발기인으로 나섰다.

박지성 재단은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6월 15일 베트남에서 박지성을 포함한 국내외 유명 축구 선수들이 참가하는 자선 경기인 '아시아 드림컵'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시아 드림컵에는 이청용(불팀)과 기성용(셀틱)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과 현역에서 은퇴한 일본의 축구스타 나카타 히데오 등 전·현직 일본 대표팀 선수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박지성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각국 축구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유소년 축구 지원 사업을 펼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유소년과 청소년 축구 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자선기금 모금행사도 펼치기로 했다.

박지성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에 도움을 줄 방법을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내 축구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빙벽 등반 박희용 월드컵 우승

한국 빙벽 등반의 간판 박희용(29·노스페이스)이 국제산악연맹(UIAA)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박희용은 7일(한국시간)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UIAA 3차 월드컵 난이도 부문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마르쿠스 벤들러(오스트리아)를 11초 차로 제치고 1위로 완등하며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여자부에 출전한 신윤선(31·노스페이스)도 난이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희용과 신윤선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4차 월드컵에 출전한다. 신윤선은 4차 대회에서 선전하면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월드컵 종합 우승을 이룰 수 있어 결과가 기대된다.

아이스클라이밍 난이도 경기는 제한 시간 9분 이내에 120도 이상 기울어진 20m짜리 인공빙벽을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소년신궁 김우진 '올해의 선수'

작년에 한국 양궁을 가장 빛낸 선수로 '소년신궁' 김우진(19·충북체고)이 선정됐다.

대한양궁협회회는 김우진을 2010년 최우수 선수로 선정해 오는 9일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우진은 충북체고 시절이던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다. 작년 8월 미국 유타주 오그던에서 열린 국제양궁연맹(FITA) 3차 월드컵에서 국제무대 데뷔전임에도 베테랑들을 제치고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땀다.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해 2관왕에 올랐다. 예선에서는 개인싱클 종합에서 1387점을 쏘아 세계 신기록도 세웠다.

김효범 프로농구 올스타전 MVP

프로농구 서울 SK의 포워드 김효범이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받은 상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201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15점, 4어시스트를 기록해 MVP에 선정돼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김효범은 상금 전액을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 기부한다.

사단법인 '수단 어린이 장학회'는 아프리카 수단인 톤즈에 정착해 의사, 교사, 건축가로 일하며 봉사 활동을 한 고(故) 이태석 신부의 뜻을 기려 설립된 단체다. /연합뉴스

윤석영 VS 홍철

'이영표 후계전쟁'



〈전남 윤석영〉



〈성남 홍철〉

터키와 평가전을 위해 이스탄불에 입성한 축구 대표팀이 도착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구슬땀을 쏟았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터키와 친선 경기를 사흘 앞둔 7일(한국시간) 이스탄불의 벨레디에서 발라트 체육공원에서 첫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10일 평가전을 위해 조 감독의 부름을 받은 22명의 선수 중 한국에서 출발한 13명에 이경수가 합류해 모두 14명만으로 치러졌다.

이중 눈길을 끈 선수는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영표(34·알힐랄)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꼽힌 홍철(21·성남 일화)과 윤석영(21·전남 드래곤즈).

첫 훈련에서 두 새내기 수비수들은 내내 조광래 감독의 불호령을 받았다.

이날 훈련에서 조 감독은 이들의 이름을 유독 자주 입

새내기들 "왼쪽 풀백 적임은 나요나"

조광래호 10일 터키전 세대교체 시험

에 올랐다. 이영표의 뒤를 이어 왼쪽 풀백을 맡길 재목을 찾는 것을 이번 친선훈련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조 감독은 "홍철이, 더 움직여야지", "석영아, 수비 안 하나" 등을 연발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들 동갑내기 수비수들은 신에다운 패기를 잃지 않았다.

홍철은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이영표 선배의 자리를 이어받을 진짜 후계자가 되려면 실력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며 "그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영표 선배는 풀백의 교과서적인 존재다. 그런 선배의 공백을 메우려고 지나치게 의식하면 내가 가진 플레이를 못하게 된다"며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잘 해내다 보면 점차 선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배보다 경험은 적지만 왼발잡이고 활동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며 "오늘은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에 조금 주눅이 들어서 100% 내 실력을 못 보여 드렸지만 남은 2~3일 동안 가진 것을 모두 발휘해보자"고 덧붙였다.

윤석영 역시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윤석영은 "지난해 아시안컵 예비 엔트리에 들어 제주 친선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어 감독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배가 뛰던 자리라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즐거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에 가담할 때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 홍철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썬돌' 이세돌 12개월째 국내랭킹 1위

'썬돌' 이세돌이 12개월째 국내랭킹 1위를 지키며 독주체제를 굳혔다. 7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2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총점 9828점을 얻으며 2위 최철한을 133점차로 누르고 1위를 지켰다.

두 달 연속 랭킹포인트가 하락하며 1위 자리를 위협받던 이세돌은 지난달 8승2패를 거두며 점수를 38점 끌어올렸다. 2010년 3월 이창호 9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

던 이세돌은 이로써 12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키면서 통산 43회 1위를 차지했다. 2개월 연속 최다대국을 기록한 '독사' 최철한은 2위에 올랐다. 2개월간 2위를 지키던 박정환 9단은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4위와 5위는 지난달과 변함없이 허영호 8단, 원성진 9단이 올랐고 강동운 9단은 공동 5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지난달 12월에 7위로 급락한 이창호 9

단은 1월 한달동안 3승3패로 반타작 3개월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5전전승의 이영구 8단은 두계단 상승하며 1년5개월만에 10위권에 재진입했다. 여자기사는 루이나이웨이 9단(70위)-박지은 9단(72위)-조혜연 9단(80위)의 트리오키가 여전히 상위권을 점령했다. 프로기사 랭킹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합산하여 한국기원이 매달 발표한다. /연합뉴스

http://kjmarathon.co.kr



2011년 마라톤의 시작은 3월 1일 광주에서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 단체참가 특전 : 지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일보사)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7-00237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광주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 참가문의 | 062-220-0541